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배

신학박사 조 덕운

[레위기 10:1-3]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2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3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잠잠하니라.

[시편 99:5]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요한: 4:23]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1.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심

레위기에는 성막 제사와 관련하여 ‘불’에 관한 구절이 71 번이나 있으며,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 [profane fire]’로 죽기 전에도 50 번 이상 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은 성막 제사, 즉 동물 제사에 중요한 요소이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헌납하는 동물을 태우기 위하여 제단에는 꺼지지 않고 항상 불이 타고 있어야 하였습니다. 이 두사람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드리는 일을 먼저 행하였는데, 그들은 향로 안에 제단에서 항상 타고 있는 숯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고 그 위에 향료를 넣어 하나님 앞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두려워 하여 거룩한 제단의 불로 향을 바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넣어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노를 초래하여 그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6:12-13] 주 앞의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료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 13 주 앞에서 불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뒤에 있는 공훈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불이면 불이지 거룩한 불과 거룩하지 않은 불이 달리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불과 거룩하지 않은 불을 구별하지 않는 태도, 즉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는 적당한 태도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두려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거룩한 불로 향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불은 모두 제단에서 매일 24 시동안 타고 있는 '거룩한 불'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이었으며, 이 원칙은 계시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시록 8:5]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니더라.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크게 시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자세와 심령으로 해야 하는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는 그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칙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세분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막 제사나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에서나 우리가 동일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히 경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태도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하는 태도는 동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 예배의 원칙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에서 한 죄 많은 여인과 대화 하시면서 신약 시대의 예배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4:23-24]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개역개정 번역판은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라고 잘못 번역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 따르면 우리가 무슨 신비적인 분위기에서 진정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 태도를 잘못 규정하도록 오도하고 있으니 올바른 성경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칙은 첫째,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즉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worship in Holy Spirit]을 가르치신 것이며, 둘째로, 예배의 중심에 진리되신 주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 [worship in the Truth of Jesus Christ]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훼방하는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있으면 아니됨을 의미합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불로 하나님께 향을 드려 경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본을 신약 시대에 반복하면 아니 됨을 가리키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 둘째 원칙 역시 구약의 성막 제사에서 제단의 불이 성막의 한 가운데에서 1 년 365 일, 하루 24 시간 타고 있었던 그 불이 제사에 사용된 모든 불이 되었던 원칙과 같습니다. 다른 불, 거룩하지 않은 불이 제사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단의 불이 신약시대에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기꺼이 바치신 예수님안에 있었던 사랑, 죄 속에 있는 인류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의 중심에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영 안에 드리는 경배'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편 99:5]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예배는 겸양의 자세로 드러져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자를 드러내는 것 대신에 낮은 자리, 주님의 발받침 아래 엎드려진 채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치 팝송 가수가 자랑스럽게 퍼포먼스를 펼치듯 강단 위에서 행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힘껏 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어리석은 행동을 본받아 복치고 뺨과리 치고 사탄의 음악인 록 음악을 원천으로 한 CCM 을 부르면서 행하는 소위 '현대식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불로 향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공연 가수의 퍼포먼스에 흥분하면서 박수치면서 소리 지르는 행위로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일 수 있을까요? 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에 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3. 천국의 예배

21 세기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계시록 5:11-14]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14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위의 계시록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천 만만의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터인데, 만일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대식 예배’ 즉 ‘다른 예배’를 드려 왔다면 천국의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사는 동안 드렸던 “이상한 예배”에 대하여 많이 후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이상한,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아론처럼 뼈아픈 회개와 자성을 감당하지 않도록 “성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 “십자가의 불로 드리는 예배”로 돌아오기를 권면합니다.

마라나타.